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837년 1월 옥중 순교자 김 아가타 (2)-1

- 김아기 아가타 성인의 자매[언니]인 김 아가타에 대한 새로운 기록 소개 -

지난 『상교우서』 64호(2019년 가을호, 43~48쪽)에서 1837년 1월 샤스탕 신부가 입국했을 당시 서울 포도청 옥에서 순교한 김 아가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이하 ‘달레 교회사’로 약칭에서는 샤스탕 신부의 입국일인 1월 15일에 ‘김선사 아가타’가 그 전날 받은 혹독한 형벌로 인해 순교했다고 나옵니다.[번역서 중권 364쪽] 하지만 모방 신부 서한과 샤스탕 신부의 서한,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이하 ‘다블뤼 비망기’로 약칭에서는 김 아가타의 순교일이 1월 2일, 15일, 26일로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달레 신부가 ‘다블뤼 비망기’를 근거로 삼아 15일을 순교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 아가타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다블뤼 비망기’에서 언급된 ‘현사궁(顯思宮, Sien Sa Kong[시엔사이공]) 각시[궁녀]’라는 별칭 중 앞의 두 글자를 달레 신부가 이름으로 여겨 ‘김 시엔사(Sien Sa)’라 적었고, 이를 달레 교회사의 역주자가 ‘김선사’로 번역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림1] 김아기 아가타 성인(권한수 작)



[그림2] 샤스탕 신부 성인

이와 같이 필자는 관련 사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김 아가타가 조선 23대왕 순조(純祖)의 생모인 수빈(綏嬪) 박씨의 사당인 현사궁[나중에 경우궁(景祐宮)으로 불림]에 속한 궁녀 출신이었다는 것과 그가 옥중에서 사망한 날은 샤스탕 신부가 입국한 날인데 그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아가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기록이라든가 옥사한 날[순교일]을 더 확인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 예정인 모방 신부 서한을 역주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김 아가타와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전에 필자가 추론했던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면을 통해 현사궁 궁녀 출신 김 아가타에 대해 추가할 내용은 김 아가타의 가족에 대한 것이고, 수정할 추론 내용은 순교일에 대한 것입니다. 모방 신부 서한을 통해 1839년 5월 24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한 김아기[관찬 사료에 金阿只로 나옴] 아가타 성인이 김 아가타의 자매[동생으로 추정]임이 새롭게 밝혀졌고, 그의 순교일은 1월 2일[샤스탕 신부와 모방 신부의 서한 또는 15일[다블뤼 비망기]로 추정됩니다.

1837년 옥중 순교자 김 아가타와 1839년 참수 순교자 김아기 아가타 자매

지난 『상교우서』 64호에서는 샤스탕 신부의 1837년 9월 12일 서한과 9월 15일 서한, 모방 신부의 1837년 말[11월 17일경으로 추정] 서한, 다블뤼 비망기(f.357)의 내용을 검토했는데, 김 아가타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모방 신부 서한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위의 11월 17일경 서한 외에도 1837년 11월 26일 서한과 11월 26일경 서한, 1839년 9월 6일 서한과 8~9월 서한[박해 보고서 등 4통의 서한에서 김 아가타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방 신부가 1837년 11월 26일 무렵에 작성한 2통의 서한에서는 샤스탕 신부가 입국한 날에 아가타라는 여성이 감옥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또한, 1839년(기해) 천주교 박해 와중에 작성한 2통의 서한에서는 그해 5월 24일 참수 순교한 김아기 아가타를 서술하면서 그 ‘자매’를 언급했습니다. 이 서한들에서는 그 자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샤스탕 신부가 입국한 날에 순교했다는 내용으로 보면 김 아가타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1837년 1월 옥중 순교자인 김 아가타와 1839년 5월 24일 서소문 밖 참수 순교자 김아기 아가타가 자매라는 사실이 모방 신부 서한을 통해 확인됩니다.

샤스탕 신부의 1837년 9월 12일 서한과 모방 신부의 1837년 11월 26일경 서한의 내용을 종합하면, 김 아가타가 옥중에서 순교했을 때 4명의 여성 신자와 (이호영) 베드로가 감옥에 남아 있어 계속 심문을 받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 있던 이호영은 1838년 11월 25일에 옥사했지만, 나머지 4명의 여성신자[이 아가타, 김아기 아가타, 김업이 막달레나, 한아기 바르바라, 모두 과부들은 1839년 5월 24일에 서소문 밖에서 참수 순교했습니다. 이 중 김아기 아가타는 김 아가타의 자매였고, 『기해일기』에 의하면 ‘병신년(1836) 9월(음력)’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김 아가타가 언제 잡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옥중에서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자매인 김아기와 다른 신자들과 함께 포도청 옥에 갇혀 있었음을 위의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김 아가타와 김아기 아가타가 자매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누가 언니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어의 sœur(자매)는 남자 입장에서 누나 또는 누이동생, 여자 입장에서 언니 또는 동생 개념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순위와 손아래를 구분하려면 grande(큰)나 petite(작은) 같은 형용사가 붙어야 합니다. 김 아가타 자매의 경우는 이러한 형용사가 없이 그냥 sœur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해일기』에 기록된 김아기 아가타 약전에 자매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비신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김아기는 머리가 아둔했는데, 그 ‘형’[자매 사이에서는 언니]이 정성으로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김아기의 남편과 친척이 다 비신자였고 그 집에서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언니가 우상들을 믿지 말라고 하자 김아기가 모두 없었습니다.

『기해일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한 페레올 주교의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이하 ‘순교자 행적’]으로 약칭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아기를 가르쳤던 언니에 대해 페레올 주교는 ‘천주교 신자가 된 언니들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고, 그 언니가 날마다 가르쳐 준 것 중에 김아기가 기억한 것은 “예수, 마리아”의 이름뿐이었다는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기해일기』와 페레올 주교의 ‘순교자 행적’을 통해 볼 때 김아기에게 여러 명의 언니들이 있었고 그 중 한 언니가 그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 “예수, 마리아” 밖에는 기억하지 못했고, 그 언니의 권유로 자기 집에 있던 우상들을 없앴다(페레올 주교는 ‘불살라 버렸다’고 기록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성적인 신자 언니가 1837년 옥중 순교한 김 아가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샤스탕 신부의 1837년 9월 12일 서한에 김 아가타가 심문을 받을 때 “예수, 마리아”를 줄곧 불렀다고 나오는데, 이는 김아기가 그 언니에게 배운 “예수, 마리아”를 심문을 받을 때 실 새 없이 불렀다는 ‘순교자 행적’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감옥에서 대세(代洗)를 받았던 김아기가 세례명을 ‘아가타’로 정한 것도 옥살이를 같이 하다가 먼저 순교한 언니의 세례명을 따라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올 성회례 봉재일은 3월 2일 입니다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판독과 역주 작업을 거쳐 간행 준비 중인 『병인순교자 시복재판기록』 2권 69쪽에 ‘성회례 봉재(聖灰禮封齋)’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는 사순시기의 첫날인 ‘재의 수요일’의 옛말인데, 성회례는 성 가지를 태운 재를 축성하는 일을 말하고 봉재는 사순시기를 뜻합니다. 우리 신앙선조께서 사순시기에 어떠한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병인치명사적』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양 40일 봉재를 당하면 자기 재(齋, 금식과 금육)하고 남은 양식은 가만히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져다가 두고 혹 옷 벗은 이를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이를 돌아보고 힘써 돕더니”(순교자 허 야고보에 대한 증언, 3권 26쪽, 『병인치명사적』(역주본) 1책 121쪽)

“40일 재(齋)[사순 시기] 지킬 때에는 모든 양식(糧食)은 반드시 애궁(哀矜)하니 모든 이(가) 일컬어 가로되 “장래에 천당 재목(材木)이라” 하더라.”(순교자 이 마태오에 대한 증언, 24권 93쪽, 『병인치명사적』(역주본) 5책 783쪽)

위 기록은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신앙선조의 사순시기 삶과 관련한 증언입니다. 우리 신앙선조는 넉넉지 않은 삶에도 사순시기가 되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참회하고 희생·극기·회개하며 이웃과 나누는 애공(哀矜, 자선)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혹시 사순시기가 오면 떠오르는 옛 기억이 있으실까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매 끼니 가족 수 만큼 쌀 한 숟가락씩 ‘성미함’에 덜어내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사순시기에 쌀을 모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누는 성미운동은 꽤 오랜 역사를 지닌 것 같습니다.

수원교구 기록으로는 초대 교구장이신 윤공희 빅토리오 주교님께서 1971년 사순절 교서로 발표하신 내용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수원교구장 자료집1 『초대 교구장 윤공희 빅토리오 주교의 말씀』 64쪽) 이때의 성미운동은 교구 신학생 양성을 위해서였고, 이후로 여러 본당에서 전통처럼 성미운동을 해온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미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1985년 가톨릭신문 기사에 소개된 수원교구 지동성당의 사례(『가톨릭신문』 1985년 4월 7일 제1450호 6면)로 소개해 봅니다. 지동성당은 1982년부터 4년째 ‘쌀 한 줌의 정성으로 우리 사제 탄생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신학생돕기 성미운동을 펼쳤습니다. 각 가정에서 매 끼니마다 본당 신학생을 위해 쌀 한 줌씩 덜어 한 달간 모은 성미를 본당 사무실에 내고, 본당에서는 쌀을 일반미와 정부미, 혼합곡으로 분류해서 한 달에 두 가마 정도의 성미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자들은 이 성미를 시중 가격으로 구매, 그렇게 기금을 마련해 당시 세 명의 본당 신학생을 후원했습니다.

이러한 사순절 성미운동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순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본당에서 ‘사순절 저금통’을 준비하거나 성미함을 마련합니다.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는 올해 사순시기를 맞이해 ‘사순시기 저금통’을 배포하고 저금통 기금을 ‘긴급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교구 내 긴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사순시기가 끝나는 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긴 기간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치료로 고통받은 모든 이에게 은총 가득히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백신욱 베드로(연구원)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